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두 주일 앞으로 다가온 '95 예수사랑 큰잔치 태신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 - 금주에는 태신자를 방문, 전도하며 초청장 전달
예수사랑 큰잔치 당일 1부 교회학교는 예배만
당일은 오전 7시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예배, 저녁 찬양예배시는 총동원 잔치로
초청전도집회(6월 7~9일)도 막을라

그 동안 여러 모양으로 준비해온 예수사랑 큰잔치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금년엔 조용한듯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각 교회, 각 교구에서는 작년부터 열심과 조직과 동원으로 임하고 있다.

다음 주간에는 초청전도집회(6월 7일~9일)를 갖게 되면서 예수사랑 큰잔치가 막이 오른다. 이를 위해 금주와 다음 주에는 태신자를 방문하여 전도하고 초청장을 보내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교회학교에서도 다음주를 위시하여 예수사랑 큰잔치를 자체계획으로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어 금주부터 6월은 온통 예수사랑의 분위기가운데 지내게 된다.

특히 금주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접촉해온 태신자를 만나서 마지막 전도를 하며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이 일을 놓치면 그동안의 애씀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는 당일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만 또한 그 앞선 주간에 실시하는 초청전도집회(6월 7일~9일)에 사람들을 참석시켜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결정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저녁 초청전도집회에 태신자 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참석하여 태신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청전도집회에 주력교구를 정하여 전도집회에 참석토록 되어 있다.

7일(수)에는 1·2·3·4·5·8·11·12교구, 8일(목)에는 1·2·3·4·6·9·11·13교구, 9일(금) 1·2·3·4·7·10·11교구이다.

또한 당일에는 예년과 같이 본당 앞뜰에 각 교구별 천막을 설치하여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다. 당일에는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시, 3시, 5시(저녁 찬양예배) 등 2시간 간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5시 저녁 찬양예배시는 모든 사람이 모여 잔치를 하게 된다.

이날 1부 교회학교는 예배만 드리게 된다. 따라서 교회학교 교사들도 부처장 단만 예배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각자 전도대상자에게 집중하게 된다. 2부 교회학교는 집회로 모이지 않고 전원 전도에 힘쓴다. 예년에는 봉사, 안내를 위해 전도회 임원들이 담당했으나 이번에는 봉사와 안내를 대학·청년들이 담당하도록 해서 온 교회 교우들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초청전도집회나 예수사랑 큰잔치 당일에 태신자들은 반드시 교회 뜰에 설치해 놓은 교구천막에 가서 등록(일종의 출석확인)을 하고 본당에 입장해야 한다. 본당에서 결신초청시간에 결신여부를 확인하고 결신한 사람에게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해준 후 나올 때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결신한 사람 중에서 교회에 등록하는 일을 도와 등록을 시킬 수도 있다. 또한 결신자들 중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교역자가 심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록 도와준다.

당일에 제일 큰 문제는 차량관리 문제이다. 차량관리요원이 전원 동원되며 조직적으로 하겠지만 교회 사방에서 밀어닥치는 차량을 요령껏 주차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대로 해결하자면 우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실 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일이고, 또한 차량운전자는 차량관리요원의 인도에 철저하게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관리를 돕기 위해 대학부 회원이 전원 동원되어 도울 것이다.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마지막 그물을 당기기위해 마지막 노력과 정리가 남았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라는 말씀을 실감나게 경험할 일만 남았다. 이 일은 실제로 행한 사람의 몫이다.

마지막까지 부지런하여(잠 6:6-11), 지체하지 말고(창 19:16), 즉시 순종하여야(마 25:16) 할 것이다.

'95 예수사랑 큰잔치 특별새벽기도회의 이모저모

◆ 지난 월요일(22일) 새벽부터 시작한 예수사랑 큰잔치 새벽기도회는 예상을 훨씬 넘어선 인원이 참석하며 금요일(26일)까지 모였다. 본당에 마련된 교구별 모임좌석이 모자라 좁혀 앉을 수 있는 만큼 좁혀 앉고도 모자라 뒷편 좌석에 앉아야 했다.

◆ 첫날은 차량의 혼란이 있었지만 이튿날부터 차량관리부원들의 조직적이고 기민한 안내로 차량관리가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그러나 개중에는

차량관리요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끝내고 나올 때 좀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곳에 주차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눈에 띄기도.

◆ 첫날부터 좌석이 모자라자 날이 가면서 새벽기도회 출석 시간이 당겨지기 시작했다. 예배시작 10분전 캠페인이 무색할 정도, 이미 15분전에 좌석들이 차기 시작.

각 교구에서 오는 방법도 다양했다. 승용차에 6명이 함께 타고 오기도 하고, 먼 거리에서 할중료를 마다않고 택시를 타고 오기도 했다. 어떤 성도는 택시 강도를 만나 우여곡절 끝에 오기도 했다.

◆ 연합찬양대(일 자별로 주력 찬양대가 동원)가 연일 찬양시간을 담당해주어 새벽기도회가 한결 빛이 났다. 이번 새벽기도회에 나온 사람들은 새벽에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줄을 알았으리라. 당회장 신성종 목사도 회중이 모두 함께 힘다해 찬양할 것을 강조했지만 목이 풀리지 않아 모두가 고심.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어 은혜가 되었다.

◆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이번 새벽기도회에 빌립보서 전장(4장)을 매일 한장씩 요점별로 강해. 매일 나누어준 강의안을 보며 빌립보서를 공부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요점 중심의 공부가 전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 이번 새벽기도회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온 가족이 참여한 가정이 많았다. 부부가 다함께 새벽에 나와야 하기에 차에 가족 모두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하여 보기도 좋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도 했다.

◆ 아쉬운 것은 개인기도와 교회 공동의 기도를 할 시간의 부족.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이를 위해 설교전 3분 정도의 기도시간, 설교 후 3분, 모든 집회 후 5분 정도의 기도시간을 마련해주기도 했지만 다소 부족한 듯한 느낌이다.

◆ 나이드신 권사님들은 새벽기도회



에 참석하기 위해 아예 밤에 교회에 와서 철야기도하며, 잠을 자며, 새벽기도회에 참석, 교회내 사랑부실, 갈릴리움 등은 저녁마다 초만원을 이루었다. 매일 새벽기도회 후 직접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식당에서는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도 해서 오히려 출근길이 편해지기도.

◆ 이번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전 교구(경기도, 강북 끝 등)가 고르게 참석하여 교회의 필요와 힘을 모아야 할 때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도 오랫동안 실시한 전 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육신은 다소 힘들지만 유익하고 유쾌했다는 마음들이었다. <형>





총현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38 ●

음도 바벨론의 멸망

(계 18:1-8)

본 문은 바벨론 멸망장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음녀 멸망장(17장)과 보는 관점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도(淫都; 음행의 도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 보면서 현대의 바벨론인 우리 사회를 하나하나 진단해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바벨론 멸망에 관한 천사의 말

첫째로, 본문 1절을 보면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늘에서부터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광채가 환하게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천사는 종말 사역을 맡은 천사, 즉 마지막 음행의 도시인 바벨론을 심판할 큰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고 했듯이 천사는 하나님의 태양과 같은 영광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광채를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깨달을 것은 깨닫고 대비할 것은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인류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가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흐르고 흐르는지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물론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2절을 보면 바벨론 멸망의 선포가 나옵니다.

멸망할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큰 성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향력이 있고, 지식이 발달하고, 상업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각종 더러운 영이 다 모여듭니다. 바벨론은 '신(神)들의 문'이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오만 종류의 귀신들이 다 모여 글자 그대로 귀신들의 처소,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새는 악령을 뜻하는 것입니다(마 13:31, 32).

그런데 본문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한 이유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옛날 옛적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을 영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서울이, 이 세계가 바벨론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거기에는 귀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셋째로, 바벨론의 멸망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각종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

죄악의 공해가 꼭 찬 곳입니다. 더러운 영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리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부각되는데 하나는 음행, 또 하나는 사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너무 사치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치부하였다는 말은 부나 재산 부유를 뜻하는 말로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근신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자기 혼자 쓰라는 것 아닙니다. 주의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있다고 함부로 쓰다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게 되고 결국 물질과 함께 망합니다.

2.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첫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주로 무엇이었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먼저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라고 했습니다. 나오라,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선민호출입니다. 바벨론에서, 죄악에서부터, 우상숭배에서부터 나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출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핍박의 바람이 불 때는 호출하시는 명령입니다. 6. 25때가 그렇습니다. A. D 70년에도 이스라엘에 그런 호출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당대의 의인 노아와 그 가족을 먼저 호출하고 나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롯의 가족을 먼저 호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유황불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먼저 호출합니다. 여러분, 호출할 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잔을 채양들을 받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죄짓는데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종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사무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횡적으로 보면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억울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선민들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애굽같이 세

우리는 애굽같이 세상과 합류하는 곳에서, 소돔 같은 향락과 분별없는 곳에서, 고라당 같이 작당하여 세속화하려는 곳에서, 현실주의 믿음 안에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현대 교회의 경향에서, 현대의 바람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불법한 자들에게서 더 머물지 말고 속히 우리는 이 부정한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과 합류하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히 11:27). 소돔 같은 향락과 분별없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창 19:12-14). 고라당 같이 작당하여 세속화하려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민 16:23-26). 현실주의 믿음 안에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현대 교회의 경향에서, 현대의 바람에서 돌아서야 합니다(딤후 3:1-5).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불법한 자들에게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고후 6:14-17). 부정한 곳에서 더 머물지 말고 속히 우리는 이 부정한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사 52:11). 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하고 초대교회적인 신앙생활,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첫째로 그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입니다(6절).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쉽게 말하면 심은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말입니다(갈 6:7). 여러분이 매일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절을 심습니까? 복음을 심습니까? 성령으로 심습니까, 육체로 심습니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과 불손함을 창피하게 하십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인간의 오만 불손함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나는 여자 황제로 보좌에 앉은 자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결코 아니니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로워하고 슬퍼해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러한 오만은 바로 영원히 열국의 주모가 되어 끝없이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오만과 불손함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오만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를 잡아 먹고 삼키기는 했지만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웃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웃을, 교회적으로는 이웃 교회를, 국가적으로는 이웃나라를 도와줘야 합니다. 혼자만 살려고 하면 안됩니다. 나무는 크면 그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도 피하고 눈비도 피합니다. 마

찬가지로 교회가 크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 가난한 교회를 많이 도와야 합니다. 자꾸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4. 바벨론이 받는 죄의 보응

바벨론이 받는 3대 죄악에 대한 받는 보응이 6-8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성도를 핍박한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했습니다. 둘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또 셋째로 교만한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여러분 5공때만 꽤죄책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는 치십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교만한 것이 바벨론의 삼대 죄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삼대죄악이기도 합니다.

그 보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 보응은 하루 동안에 이른다 고 했습니다. 천천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피할 길이 없이 임합니다. 보응의 내용은 사망, 애통, 흉년, 불사름의 네 가지가 나옵니다. 왜 사망이 임합니까? 그들이 과부가 아니라고 과부를 깔봤거든요. 과부들을 비웃고 천대했기 때문에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절제하고 흥청거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애통이 왔습니다. 또 그들은 너무나 무사치했습니다. 풍부에 대한 그들의 과잉된 사치가 흉년을, 주림을 가져왔습니다. 또 그들에게 불사름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살라 버려야 합니다. 없애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 사회가 세속화되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탈출하여 오직 하나님의 구별하신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특별기고 ③ / 충현교회 장년1부 대상 부부생활에 대한 앙케이트 *



바른 성경적 가정관과 부부의 성경적 위치 및 역할의 필요성 보여

이 한 수

(목사, 장년1부 지도, 충신대학원 신약학 교수)

교회학교 장년1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5월 27일(토) "부부생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장년1부에 출석하는 부부들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본 원고는 그 결과를 수치적인 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수치가 충현교회 40대 부부를 모두 대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 한 모든 가정들이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기에 이에 게재하여 함께 나누려고 한다. (편집자 주)

설문22(배우자의 신앙에 대한 평가)

남편이나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152명이었다. 성숙한 편이라고 응답한 분은 4명(2.6%),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분은 24명(16%), 부족하면서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분은 124명(82%)이었다. 배우자의 신앙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일텐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부족하면서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은 교회생활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화하는 목회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설문23(헌금에 대한 갈등)

교회에 내는 헌금 때문에 갈등해본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154명이었는데, 갈등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분은 84명(55%), 갈등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분은 68명(44%),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분은 2명(1%)이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헌금내는 문제를 가지고 심한 갈등은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갈등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부부간의 성생활의 문제

설문24(성생활에 대한 견해)

부부간의 성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154명이었다. 성생활을 불결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분은 전혀 없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분은 108명(70%),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분은 46명(30%)이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성생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반해 30%의 사람들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설문25(성생활의 기여도)

성생활이 원만한 부부관계에 도움을 주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155명이었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분은 82명(53%),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분은 69명(45%), 별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한 분은 4명(2.6%)이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부들이 원만한 부부생활을 위해 성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설문26(성생활에 대한 만족도)

본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54명 중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은 45명(29%), 조금 만족한다고 대답한 분은 85명(55%), 만족 못한다고 대답한 분은 22명(14%),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분은 2명(1%)이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성생활에 크게 또는 어느 정도 만족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27(부부간의 동거 여부)

현재 남편이나 아내와는 함께 사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68명 중에서 직장문제로 떨어져 살다가 가끔 만난다고 응답한 분은 14명(8%),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분은 131명(78%),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답변한 분은 2명(1%), 함께 살기는 하지만 잠자리를 함께 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한 분은 11명(7%)이었다. 대다수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지만,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유에서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분들이 7%나 되었다.

설문29(의처증 또는 의부증의 여부)

본인의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56명 중에서 '없다'고 답변한 분은 150명(96%)이었고 '있다'고 답변한 분은 6명(4%)이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의처증이나 의부증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4%의 부부들이 아직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의 경우에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 반면에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부 아내들에게 남편이 느끼는 의처증이라는 사실이 대조를 이룬다. 이것은 아내들이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설문30(재정적 뒷바침의 주제)

가정의 재정적 뒷바침은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59명 중 남편이 혼자 뒷바침한다고 대답한 분은 93명(58%),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돈을 번다고 응답한 분은 58명(36%), 아내가 더 많은 경제적 뒷바침을 한다고 응답한 분은 7명(4%), 아내 혼자 가정의 경제를 뒷바침한다고 응답한 분은 1명(0.6%)이었다. 대체로 아직도 가정의 경제는 남편이 뒷바침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내가 더 많은 경제적 뒷바침을 한다고 대답한 경우도 4%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돈을 번다고 응답한 분도 36%나 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것은 가정의 경제권에 대해서 아내들의 실질적 발언권과 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설문31(남편의 경제력에 대한 평가)

남편의 경제력에 대해서 만족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51명 중 크게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은 17명(11%),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은 80명(53%),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분은 45명(30%),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응답한 분은 9명(6%)이었다. 대체로 아내들은 남편들의 경제력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이지만 만족하

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30%나 되어서 아내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하는 한 요인이 되지 않나 판단된다.

설문32(경제력의 부부생활 기여도)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행복한 부부생활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59명 중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분은 66명(4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분은 88명(55%),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은 5명(3%)이었다. 이것은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하려면 경제적 형편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이해롭다. 경제적 형편이 어떠한 것인지 간에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분이 극히 적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과 세상 사람들의 경제관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문3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부 갈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 간에 갈등해본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58명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부간의 갈등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분은 73명(46%),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좀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분은 80명(5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분은 5명(3%)이었다. 위의 설문 32번과 함께 판단해볼 때 경제력이 행복한 부부생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기는 하지만 장년1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참고 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설문34(경제력과 교회생활의 상관성)

돈의 많고 적음이 교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53명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는다고 응답한 분은 81명(53%), 돈이 많으나 적으나 교회생활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대답한 분은 72명(47%)이었다.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생활에서도 대접을 받는다는 인식에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생활을 대접받으면서 잘 하려면 돈에 많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가정 내의 대인관계문제

설문35(자녀 교육관의 차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하는 교육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해 보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95명 중에서 자녀 교육관의 차이로 부부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분은 11명(7%), 자녀 교육관의 차이로 갈등이 조금 있다고 응답한 분은 75명(47%), 교육관의 차이로 잘

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분은 72명(45%)이었다. 이로써 대부분의 장년1부에 속한 분들이 자녀 교육관의 차이가 부부 갈등에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설문36(생활교육의 주제)

자녀의 신앙생활 교육 또는 공부 지도를 누가 담당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59명 중에서 남편이 주로 한다고 응답한 분은 1명(0.6%)에 불과하였고, 아내가 주로 한다고 응답한 분은 68명(43%),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한다고 응답한 분은 81명(51%), 남편이나 아내도 거의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분은 9명(5.6%)이었다. 자녀의 신앙생활 교육에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한다는 분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가정들의 경우에 아내에게만 자녀 교육이 위임된 경우도 43%나 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직장 일로 바쁜 것을 이유로 점차 자녀의 신앙 교육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설문37(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

제사 문제로 인한 식구들과의 갈등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52명 중에서 집안이 다 믿어서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없다고 응답한 분은 85명(56%), 남편이 믿지 않아서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분은 13명(8.5%), 남편과 아내는 믿지만 집안 어른이 믿지 않아서 제사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분은 54명(36%)이었다. 이것은 아직도 상당수의 부부들이 제사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설문38(고부 간의 갈등 여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부부 생활에 갈등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88명 중에서 고부간의 관계가 원만해서 부부 관계도 원만하다고 응답한 분은 80명(68%),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부부관계도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분은 13명(11%), 고부간의 갈등은 있지만 부부관계는 원만하다고 응답한 분은 25명(21%)이었다. 고부간의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들이 아직도 32%에 해당하여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접근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

설문39(본인의 신앙생활의 평가)

현재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160명 중에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기쁘고 활력이 넘친다고 응답한 분은 49명(31%), 신앙생활은 하지만 가끔 또는 자주 우울하고 힘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분은 53명(33%),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가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고 응답한 분은 2명(1%), 신앙생활은 기쁘지만 외부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들 때가 많다고 응답한 분은 56명(35%)이었다. 남자들의 경우에 전체 응답자 11명 중에서 6명(29%)가 자신의 신앙생활이 우울하고 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자들의 경우에 전체 응답자 139명 중에서 49명(35%)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우울하고 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한 것이 대조를 이룬다. 이로써 자신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전체 응답자 중에서 66%에 해당되어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34%에 해당하고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에게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 충격을 준다. 이들에게 우울하고 힘이 없는 생활에서 탈피하게 할 수 있는 무죄적인 특별한 배려와 관심에 요구된다고 하겠다.

토·막·소·식

◆ 유치부의 어린이들이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 고사리 손으로 기도하며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나가고 있다. 기간은 5월 21일(주일) ~ 6월 4일(주일)까지이며, 본당 앞에서는 9시 40분부터 찬양으로 친구들을 인도하고 있다. 더 많은 어른들의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 대학부는 6월 27일(화) ~ 7월 1일(토)까지 마산·진해·창원지역으로 여름전도수련회를 나가며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직접 뛰어든 많은 대학부 지체를 위해 기도후원을.

◆ 청년2부는 '30대의 자녀교육(답고 싶은 부모)'이라는 주제로 오늘 12시

30분부터 교육관 407호에서 모인다. 강사로는 김희자 교수(충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다.

◆ 장년2부는 7월 3일(월)~4일(화) 합동신학교에서 여름수련회로 모인다. 강사는 심창섭 목사.

◆ 사랑부는 제7회 여름성경학교를 6월 6일(화) 11시, 교육관 107호에서 모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1부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영화관람과 찬양과 율동 후 식사 그리고 인형극과 놀이 시간, 간식시간 등 다채롭게 준비중이다. 주위의 많은 사랑부 회원들과 새로 올 회원들에게 관심을.

◆ 제11교구에서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교구일꾼 기도모임을 오는 6월 1일(목) 오후 6시 30분 만나홀에서 갖는다. 교구일꾼과 남녀전도회 회장단.



95세계선교대회 지난 주간은 온 교회당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로 분했다. 새벽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는 GOWE로 인해 마쳐 인종 전선장을 방불케하며 각국에서 온 대표들로 온 교회당은 생기가 넘쳤다.

월요일(22일)은 GOWE 전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며 저녁 늦게까지 모였다. 5,000여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충현교회당 뿐이어서 이곳에 모여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고 부족함없이 모든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었다. 각국 대표들은 교회당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고, 교회당 주변에 앉아 서로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대표들은 개속 본당 주위를 돌면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개신교의 UN총회로 불리는 이번 세계선교대회는 200여개국에서 4,500여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향후 세계선교의 전략을 논의, 토의하는 모임들을 가졌다. 당회장 신성환 목사는 지난 토요일(20일) 오후 장실주 경기장에서 열린 SM2000대회에서 주강사 조오지 바우어 목사의 설교를, 주강사보다 더한 열정으로 통역하여 참석자들이 선교대회에 열기와 그 의미를 함께 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화목된 가정”

하동석
(새가정부 회원)

95년은 UN이 정한 '세계 관용의 해'이다. 그러나 세상 어디를 봐도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독가스 살포로 인한 무고한 시민의 희생, 자동차 폭탄 테러 사건 등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 인간들은 달려 가고 있다.

국내한 정도 그렇게 중적만은 아니다. 설수대교의 붕괴로 몇 사람의 동고갈 화생들이 희생되었고 또한 가스폭발로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안타깝게도 대학교수의 전신을 가진 자살이 부모를 살해하는 등 지면이 부족하여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렇게 되도록 과연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하였는가? 한 번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타협하는 평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짐을 떠넘겼고, 세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신세대

니 구세대나 하며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새가정부에서는 지난 94년도에 이어 올해 제2회 가정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행사는 새가정부 주최로 지난 5월 7일, 14일, 21일까지 3주 연속으로 가정사역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주 안에서 화목된 가정”이라는 주제 아래 갈릴릴에서 개최되었다. 제 1주일마다 약 500여명씩 참석하여 대단한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첫째날, 5월 7일에는 김수지 교수의 강의가 “크리스찬의 부부생활”이라는 주제아래 진행됐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33절로써, 먼저 듣는 베필(창 2:18)로서의 부부 역할과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순종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끝없는 연구(벧전 2:18)를 통하여 서로가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5/29(월) 충현기도원 설립 17주년 부흥회 설교
· 신성종 목사: 5/29(월)~6/2(금) 귀국
5/30(화)~31(수) 시카고 한인기독교 방송국 목회자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강의
2. 초창전도집회(6/7(수)~6/9(금)), 6/11(주일) 예수사랑 큰잔치 당일(1~5부, 찬양예배)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대신자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도록 사랑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충만한 말씀과 기도가 있게 하시며, 좋은 날씨를 주시고 모든 준비를 잘 하게 하소서.
3.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원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방자치단 체선거가 공명하게 치루어져 필요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김립성기독교신학원의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며, 기도원 성회를 축복하소서.

충현기도원설립 17주년 부흥회

5월 29일(월) 밤부터 6월 1일(목) 밤까지

충현기도원은 기도원설립 17주년을 맞으며 부흥회를 개최한다. 5월 29일(월) 밤부터 시작하여 6월 1일(목) 밤까지 실시한다. 기간중 매일 새벽 5시에 새벽기도회, 오전 11시에 낮집회, 저녁 8시에 부흥회로 모이는데 새벽기도회와 낮집회는 기도원 지도 장정철 목사가, 저녁 부흥회는 29일(월)에는 김창인 원로목사, 5월 30일(화) ~ 6월 1일(목)은 우희영 목사(성실교회 당회장)가 담당한다.

충현기도원에서는 교통편을 마련하고 있다. ① 충현 교회당에서 출발(오전 9~10시, 오후 6~7시), ② 성남 모란시장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출발(오전 10시 10

분, 오후 7시 10분), ③ 분당 전하리교회 앞에서 출발(오전 10시 20분, 오후 7시 20분), ④ 기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광주터미널에서 이천 또는 곤지암행 완행 버스를 타고 초월면 대성령리에서 하차, 도보로 약 10분 오면 된다.

한편 집회를 마치고 기도원에서 교회로 출발하는 차 시간은 오전 6시, 오후 10시 30분(부흥 집회 후)이다. 숙식을 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착순 400명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식사는 1식에 1,500원). 자세한 사항은 충현기도원(0347-64-4425, 4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로를 알 수 있도록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하라는 실천 사항까지 제시해주었다.

둘째날, 5월 14일에는 송길원 목사의 강의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주제아래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처음부터 웃음으로 시작하여 웃음으로 끝나게 되어 제목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세미나가 되었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9장 9절로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선언 아난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정에는 웃음을 잃고 각자가 서로 바쁜 일정에 따라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가정을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감으로써 얻는 기쁨을 누리자는 것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 모두 항상 유머를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파제막으로 특이한 인사법 한 가지를 소개해 주었다. 되근다는 남편에게 “피곤하시죠?”라고 하면 갑자기 남편은 “지금부터 피곤해야 겠구나!”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이에게 “각광!” 하고 인사하면 까르르 웃듯이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각광!” 하고 인사하기를 권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옆사람들에게 한 번 시험해보고는 모두가 웃음바다에 빠져 버렸다.

셋째날, 5월 21일에는 이관숙 사모의

강의가 “변혁의 시대에 대응한 가정사역”이라는 주제아래 모였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로서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또는 어린이들은 기성세대와는 상당한 가치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것은 바로 기성세대는 문자세대이고, 청소년들은 영상세대라는 것이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흥적이고, 소비적이고, 감각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으로 시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충현의 부부들은 주체에서와 같이 “주 안에서 화목된 가정”으로부터 “주 안에서 화목된 가정”이 되었음을 감히 선언하고자 한다. 물론 짧은 기간동안의 세미나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룰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정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세대나 대를 잘 숙지하여 우리 스스로가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 전성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한다.